



과 ● 학 ● 기 ● 술 ● 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지원에 팔 걷고 나서

과 학기술부는 국가적 현안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원만히 확보(주관 : 산업자원부)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박호군 장관은 5월 1일 주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성공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동시 유치를 신청하는 지역(기관) 중 1곳을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면, 과학기술부는 그 지역(기관)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지역(기관)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직접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성폐기물/양성자가속기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석식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원자력국장, 공보관 등 관련 주요 간부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확보사업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4월 30일부터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추진지원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에 필요한 과기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은 5월 1일 대구시 및 경북대학교를 방문하여 방사성폐기물/양성자가속기 연계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

과 학기술부는 9일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가 오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료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예비 감시용기는 감시시험편의 방사선 조사량이 수명 말기 원자로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시기에 인출하며 감

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하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선량 측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수명까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RI취급자일반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과 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은 영수) 주관으로 실시한 2003년 제1회 방사성동위원소(RI) 취급자 일반면허시험 합격자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5일 충남대에서 실시한 이번 시험에는 총 835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31.2%인 261명이

합격했다. 여성합격자는 51명(19.5%)이다.

합격자 발표는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정문)과 동기관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 및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에 공고했다.

사이버 원자력 연구개발 대회 개최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이 분야의 평화적 이용과 활용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콘텐츠 경연대회가 열린다.

과학기술부는 20일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 대학과 이공계 대학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원자력 연구개발 콘테스트'를 열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디지털 게임, 디지털 교육, 디지털 웹, 자유공모 등 5개 부문에서 콘텐츠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는 원자력, 방사선 분야에 관련된 홍보, 교육,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음악, 캐릭터 등을 다룬 작품이며, 디지털 게임은 이 분야가 포함된 전략, 시뮬레이션, 액션 등 PC와 온라인 게임이 대상이 된다. 또 교육용 콘텐츠는 원자력, 방사선 분야와 관련한 교육과 실험 목적의 콘텐츠로 대학 강의용 콘텐츠와 가상 실험실 등이며, 디지털 웹은 원자력 디지털 신문이나 원자력 e-Book이 대상이다. 자유 공모는 이들 분야

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 방사선 분야 콘텐츠가 해당된다.

과기부는 다음달까지 신청작품을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6월 본선출품작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11월 최종 작품 발표회를 갖는다.

본선 출전 대상자는 팀별로 최고 600만원, 개인에게는 최고 2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과기부는 대략 20개 팀과 개인 20명 가량을 본선 출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들 작품 가운데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선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홍보자료 ▲방송, 신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방사선 관련 보도자료의 기초자료 ▲원자력, 방사선 관련 교육자료 및 정보제공에 사용할 방침이다.

본선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학기술부 장관과 원자력관련 기관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와 과기부가 공유한다.

한 ● 국 ● 원 ● 자 ● 력 ● 안 ● 전 ● 기 ● 술 ● 원

原電 안전정보 6월부터 공개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원자력안전정보센터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은 7명의 연구 및 정보인력으로 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6월1일부터 10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창구 구실도 하게 된다.

과기부는 2002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원자력안

전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센터는 10일 반핵 단체, 원전 주변 주민 등을 초청한 가운데 그동안 구축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시스템을 시연했다. 센터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 정보,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규제 활동 결과 보고서, 원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 통계치, 원자력 관련 위원회 회의록,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 중요 사고에 대한 상세 정보, 사고시 비상대책, 원전 주변 바람의 방향 등 10가지다.